

장례시설에 대한 건축적 제안

Architectural Proposal of Funeral Facilities

전병직 / (주)코아건축사사무소
by Jeon Byeong-Jig

머리말

생물체인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다만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의 죽음은 당사자의 생명이 소멸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한 집단의 의식(儀式), 즉 상례(喪禮)를 통해 낫을 기리는 것이 특징이다.

상례(喪禮)는 돌아가시는 이를 위하는 절차로써 가장 정중하게 치루어진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에 생사에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차림이 될 수밖에 없는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장례 절차가 가정의례 간소화에 의해 간략화되면서 장례문화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의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 국민 3명 중 2명은 사후 화장(火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화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¹⁾ 2천만기의 분묘면적이 전국토의 1%에 이르고 매년 여의도의 3배에 가까운 면적이 묘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장묘문화²⁾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묘지 사용권도 6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내년부터 공동묘지에 묻히는 시신은 60년 이 지나면 강제로 화장돼 납골당에 안치된다. 이에 따른 문제와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화장을 장려 해야 한다는 견해와 효를 중시하는 전통예절이 우선이라는 양측 주장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장례에 대한 절차 및 종교적 의식

상례(喪禮)가 망자(亡者)와 생자(生者)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전과정에 수반되는 절차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 이라면 장례(葬禮)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만을 뜻한다. 이 과정은 그 사회의 관습이나 전통에 따라 시신을 땅위에 버리는 풍장(風葬), 땅속에 묻거나 돌 등으로 덮는 매장(埋葬),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 물속에 버리는 수장(水葬)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보편적인 시신처리 방법은 매장과 화장인데 각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매장은 선사시대 부터 행해졌다고 한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주자가례'에 따라 시신의 염(殮)을 한 뒤 관을 넣고 매장하는 유교식 장례가 확립된 이래 지금까지도 장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화장은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4~5세기부터 도입됐으며 현재의 화장법은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일본식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시작됐고,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은 44개소로 모두 공설로 운영되고 있다³⁾.

현대식 가정의례 절차에 따른 상례 절차⁴⁾는 임종(臨終) - 수시(收屍) - 발상(發喪) - 부고(訃告) - 염습(殮襲) - 입

1) 동아일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98년 10월 전국의 성인 남녀 1천10명을 상대로 화장문화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후에 화장을 수용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65.2%로 나타났다. '98.12.22. 사회면

2) 동아일보, 서울시 장묘사업소에 의하면 여의도면적(7.5㎢)의 3배가 넘는 땅이 매년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다. '98.8.31. 사회면

3) 동아일보,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은 44개소로 모두 공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화장능력은 19만 4천구이지만 화장을 기피하는 탓에 가동률은 40%선을 밑돌고 있다. 일본의 화장률은 97%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5만 7천건(전체 장례건수 24만7천건)으로 22.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8.12.22. 사회면

4) www.kidnet@chosun.com

관(入棺) - 성복(成服) - 발인(發靛)(영결식) - 운구(運柩) - 하관(下官) - 성분(成墳) - 위령제(慰靈祭) - 삼우(三虞) - 탈상(脫喪)으로 이루어진다.

각 종교식 절차에 의한 상례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독교식: 추도식 - 추모예배 - 차례예배
- 천주교식: 종부성사 - 운명 - 초상 - 연미사 - 장례식 → 장례후 3일, 7일, 30일에 또 소상과 대상때 성당에서 연미사와 가족의 영성체를 행한다.
- 불교식: 개식선언 - 삼귀의례 - 악력보고 - 착어 - 창흔 - 현화 - 독경 - 추도사 - 분향 - 사홍서원 - 폐식

장례식장의 계획

1) 장례식장의 내용

예전에 장례식이 가정 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현재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핵가족화되어 가면서 장례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이 아파트 생활로 장소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한국적 풍습에 모든 사람들이 망자에 대한 예의를 표해야 하나 장례식장이 시내로 들어올 경우 인지성이나 교통은 좋으나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어 설치가 불가능하고, 교외에 입지할 경우 설치는 가능하나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도심지에 위치한 장례식장 대부분이 종합병원의 영안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례식장에는 장례절차에 필요한 조문객 조문장소 제공, 식사편의 제공, 사진, 비디오, 조화, 수의 등 장례물품 구매 지원 등의 서비스 등이 수반되어 제공되고 있다.

2) 장례식장의 기능

장례식장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 ① 사무관리기능: 장례식의 예약 및 접수, 사망신고 등 행정처리 대행, 묘지 및 화장장과의 연계, 물품구매 등 유지관리기능
- ② 사체 처리 보관 기능: 사체의 보관, 부검, 염습(殮襲)처리 기능
- ③ 예식행사기능: 빈소를 포함한 영결식장을 제공, 장례식을 거행하는 기능
- ④ 서비스(Service)기능: 상주(喪主), 복인(服人), 문상객들에게 식사, 휴게를 제공하는 기능

화장장의 계획

1) 화장장 시설 내용

화장장의 주기능이 시체를 화장하는 시설이지만, 그 시설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족, 친인척들을 위해 시설물을 배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장장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친 상태에서 화장을 하게 되는 유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화장, 수골(收骨) 또는 분골(粉骨), 부대적인 매점, 식당, 휴게실, 사무실, 중앙제어실 등이 계획되어야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려하지 않고 엄숙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가지면 좋다.

2) 화장장의 기능분석

① 화장장 요구기능

- 환경성: 매연, 분진제거를 위한 공해방지시설 설치
 - 편리성: 이용에 불편이 없고 편리한 시설
 - 쾌적성: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
 - 조형성: 혐오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외관
- #### ② 기능별 주요실 내용
- 사무/관리기능: 관리사무실, 기계실
 - 화장기: 고별실, 유족관망실, 시체화장실, 유품소각실, 분골실, 수골실
 - 납골기능: 납골실
 - 서비스기능: 대기실, 휴식실, 식당

③ 단위공간의 기능분석

㉠ 분향실

고별실에서는 각 종교에 따라 제단이나 준비물이 상이하므로 가급적 종교별로 분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의 크기는 수행한 모든 주문객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여유와 제단을 설치하고 사체를 실은 Stretcher가 통행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 대기실

화장이 종료될 때까지 친지나 조문객들이 대기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차나 과자, 음료수 등이 딸린 매점이 있으면 좋겠고 식당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별도로 마련하거나, 완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망실

개별실로 구분 설치하여 전면의 화장로를 직접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된 칸막이의 크기는 4인 정도가 들어갈 수 있으면 충분하고 특별한 설비나 장식을 요하지 않으며 화장로측 전면에는 작은 대를 마련하여 영정과 촛대, 향로를 설치하면 된다.

④ 주요 시설을 계획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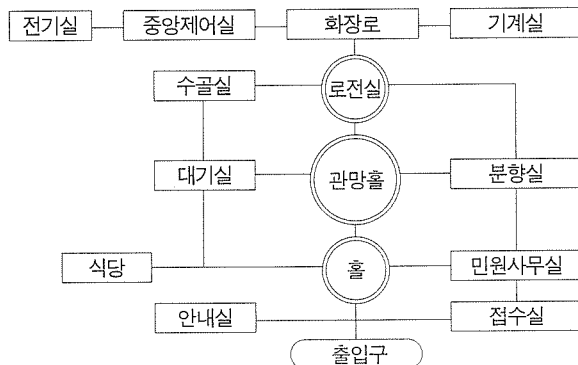
- 화장동: 화장의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계획
- 관리동: 화장동과 연결해서 진입로에서 인지가 잘되는 곳에 배치
- 주차장: 영구차 동선의 원활한 흐름과 주차의 편의
- 유품소각로: 화장로와 연계된 곳에 배치
- 옥외분향소: 최대인원에 대비한 계획 마련
- 쓰레기소각장: 화장동 건물과 이격시켜서 소각연기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

⑤ 주요 실별 계획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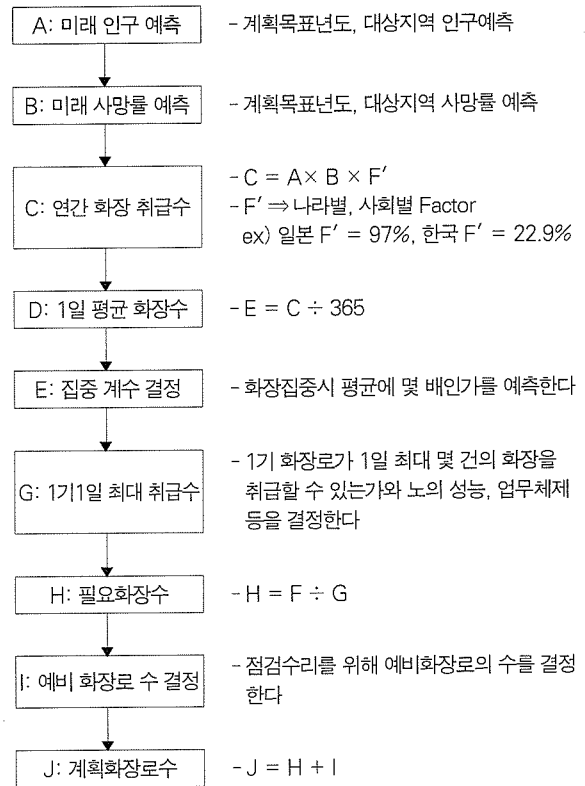
- 홀: 시신이 들어오는 공간으로서 엄숙함을 위한 공간, 관망홀과 분향실과 연계
- 분향실: 유족과 문상객의 동선을 고려
- 관망실: 전체 유족과 문상객의 최대인원을 대비한 동선과 면적 계획
- 로전실: 대차의 원활한 동선을 위한 통로 폭을 6m 이상 확보
- 수골실: 엄숙한 수골의식을 위한 수골전실의 공간 연출이 필요
- 대기실: 홀, 관망실과 분리시키고, 밝은 공간의 느낌으로 편안한 대기공간 분위기 연출
- 식당: 화장동 건물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선 큰 등을 통한 자연채광 도입

3) 화장장시설 건축계획

① 화장장의 기능관계도



② 미래인구를 통한 화장 취급수 예측



③ 건축면적산출⁵⁾

• 시가지에 위치한 화장장의 규모

대상인구(만명)	6~10	10~20	20~30	30~40	40~50
계획로수(기(基))	4	6	8	10	12
건축면적(m ²)	2,000	3,000	3,800	4,500	5,500
구내도로(m ²)	2,000	2,500	3,000	3,500	4,000
주차대수(대)	60	70	80	90	100
주차장(m ²)	2,400	2,800	3,200	3,600	4,000
조경면적(m ²)	600	900	1,200	1,500	1,800

• 교외(郊外)에 위치한 화장장의 규모

대상인구(만명)	6~10	10~20	20~30	30~40	40~50
계획로수(기(基))	4	6	8	10	12
건축면적(m ²)	2,200	3,400	4,500	5,400	6,500
구내도로(m ²)	3,500	4,000	4,500	5,000	5,500
주차대수(대)	70	80	90	100	110
주차장(m ²)	2,100	3,200	3,600	4,000	4,400
조경면적(m ²)	1,200	1,800	2,400	3,000	3,600

5) 建築設計資料46 葬祭場・納骨堂, 東京, 建築資料研究社, 1994, pp.24~25
일본의 경우 화장률이 97%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2.9%임

④ 실별 면적산출⁶⁾ (화장장시설 각실 계획면적)

대상화장장로수 (기)	4	6	8	10	12	평균기수 (10대기준)
Entrance Hall(m ²)	80	120	160	200	240	200±5%
고별실(m ²)	120	140	180	210	240	210±5%
로전실(m ²)	100	140	200	260	360	260±5%
전송홀(m ²)	-	60	100	120	140	120±5%
수골실(m ²)	120	140	180	210	240	210±5%
영안실(m ²)	15	20	25	30	30	30±5%
노(爐)실(m ²)	150	200	250	300	350	300±5%
작업원실(m ²)	30	40	50	60	80	60±5%
제어실(m ²)	20	30	40	45	50	45±5%
기계실(m ²)	120	200	250	300	350	300±5%
전기실(m ²)	40	50	60	70	80	70±5%
창고(m ²)	30	40	50	60	70	60±5%
복도, 계단(m ²)	40	60	75	90	110	90±5%
합계(m ²)	865	1,240	1,620	1,955	2,340	1,955±5%

* 建築設計資料46 葬祭場・納骨堂, 東京, 建築資料研究社, 1994
 * 일본에는 고별실이 있으며 한국에는 같은 개념의 분향소가 있다(한국의 분향소: 60±10m²,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실정리가 필요함).
 * 화장실, 주차관리실, 성직자대기실, 오수정화시설 등의 면적은 1기당 50±5m²가 더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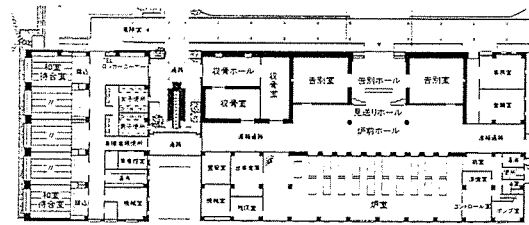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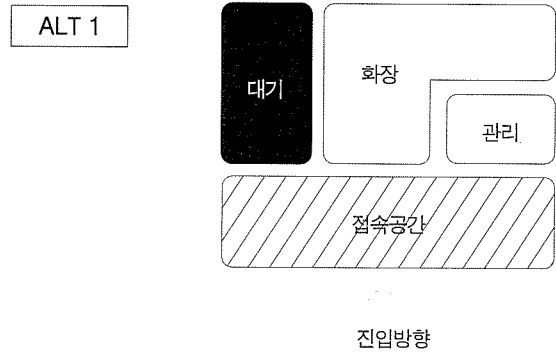
⑤ 국내건축각론에 의한 규모산정(화장로 15기 기준임)

	1구당 평균인원	총 적체 인원	1인당 소요면적 (각론에 의함)	요구 면적	비고
홀	25명	150명 (25명×6구)	1.5m ²	225m ²	
대기실	12명	180명 (12명×15구)	1.5m ²	270m ²	
관망홀	13명	195명 (13명×15구)	1.5m ²	305m ²	
수골실	12명	36명 (12명×3구)	2.0m ²	72m ²	
식당	10명	150명 (5명×15구)	1.5m ²	225m ²	
총계		706명		1,097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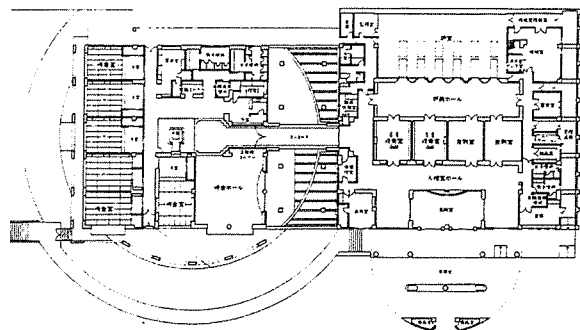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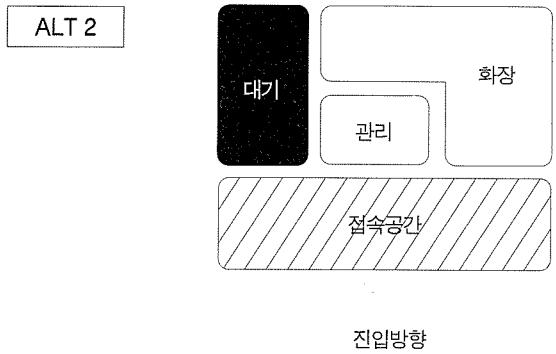
* 1구당 인원은 국내 화장장 현황조사에 의한 평균치임
 * 화장로 15기까지 운행시 동시 정체를 감안한 인원산정임

4) 배치계획

① 건축계획 기능 및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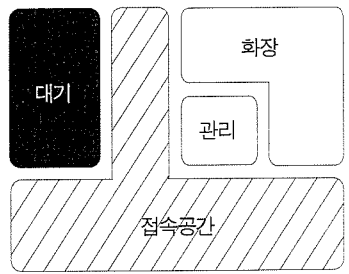
〈사례〉 일본 高知市祭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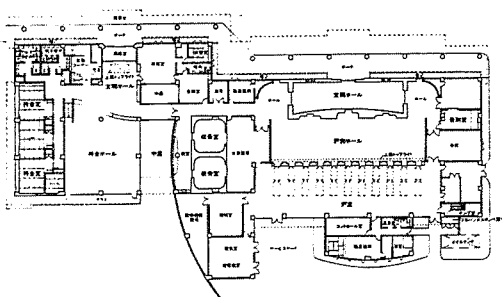
〈사례〉 일본 函館市祭場

6) 앞책, pp.24~25

ALT 3



진입방향



<사례> 일본 神戸市立西神祭場

5) 국내 화장장시설 사례

① 서울시립장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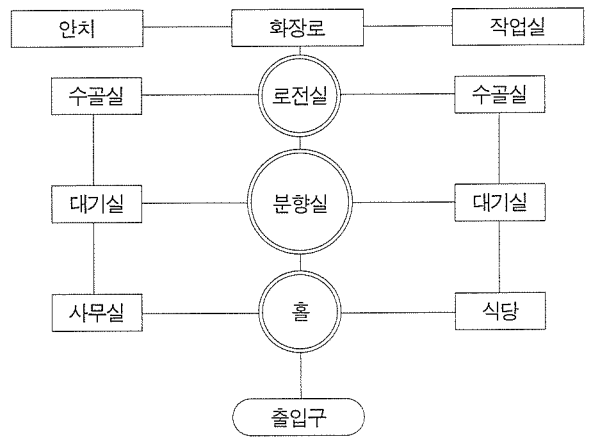
③ 설계개요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산 178-1
- 연면적: 4,176 m²
-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설 비: 집진기, 자연소로 및 무공해 화장시설

⑥ 시설내용

- 화장동: 화장로(16기), 분골실, 수골실, 분향실, 관망실, 대기실
- 부대시설: 식당, 휴게실, 사무실 등

⑨ 공간기능 체계도



② 부산영락원

④ 설계개요

- 소재지: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산83-14
- 연면적: 6,770m²
- 규 모: 지하1층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설 비: 컴퓨터 자동화 제어

⑥ 시설내용

- 화장동: 화장로(15기), 분향실(3기), 수골실(3기), 유족대기실
- 부대시설: 대기실, 대기홀, 식당, 매점, 회의실, 사무실, 납골당

⑨ 특징

- 분향 후 시신과 유족이 분리됨.
- 화장로의 자동화 도입으로 동선이 단순함.
-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과의 유기적 관계가 좋음.
- 관망홀이 없다.

맺음말

매년 약 20만기의 묘지가 생겨나고 이에 따라 여의도 크기 3배에 달하는 땅이 묘터가 된다는 통계는 우리의 앞날에 큰 고민을 던진다. 이에 정부당국도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 납골당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으며 시설납골당 설치장소를 사찰 등으로 제한해온 규정도 없었다고 한다.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화장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장시설에 대한 건축적인 시설규준 및 계획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화장장, 납골당 등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장묘시설의 명칭을 외국의 경우처럼 '공원'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장묘시설의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해 돌아가신 조상에게 분향과 헌화를 하고 영정은 물론 목소리까지 보고들을 수 있는 '사이버(가상) 납골당'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에 참배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화장납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화장 장려와 효를 중시하는 전통예절의 계승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